GP 총기 난사사건 1년…
생존자 '외상후증후군' 시달려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28사단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지 19일로 꼭 1년. 지난해 6월19일 이 GP에 근무하던 김동민(23) 일병이 동료들이 잠을 자던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2 소총을 난사해 장병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근무자 36명 가운데 27명이 살아남았다.

◇생존자 환청 시달려=생존자 대다수가 전역 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장애'(PTSD)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도 이를 인정해 7등급 판정으로 매월 23만4천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총성·폭발음·비명소리 등의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부는 TV 소리나 전화 벨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신경과민 증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 PTSD 연구=군당국은 PTSD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외파병 인력이 늘면서 '전장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 미군의 경우 이라크 공격작전에서 17%, 이라크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6~7% 가량의 PTSD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군당국은 국군수도병원에 전투와 재난, 치명적 사고시 처치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4시간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 상시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외상 후 장애(外傷後 障碍).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주로 나타난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악몽이나 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회상하거나 환청,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대표적인 증상.

'불량 방독면' 업체 입찰제한 정당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계약 부실이행·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년 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S물산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민방독면 화재 대피용 정화통이 성능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시험기를 조작해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했으므로 부당제조를 한 자로서 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물산은 정부가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 '국민 방독면 사업' 계약을 따냈지만 납품 기한을 맞추기 힘들자 판정 기기를 조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한 뒤 불량 방독면 13만여개를 납품했었다. /연합뉴스

World Cup ■ 전대후문 '올빼미 응원'

'4강 신화' 광주, 이번엔 '응원 신화'

프랑스戰 '무박 2일' 10시간 진기록
시민들 TV 30대 들고 거리로 나와

4년 전, 월드컵 4강 신화(神話)를 이뤄냈던 광주에서 이번에는 '응원 신화'가 탄생했다. 18일 밤부터 19일 아침까지 밤을 빨갛게 지새운 장장 10시간의 월드컵 응원 드라마는 신화가 됐다.

18일 밤 9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붉은 악마 뿔·풍선막대·응원나팔 등을 든 시민·학생 '붉은 악마' 1만여 명이 길거리를 가득 메웠다. 다음날 새벽 4시에 벌어질 프랑스전 거리 응원을 위해서다.

밤 10시, 월드컵 경기 F조 일본-크로아티아 경기가 시작됐다. 가로 5m·세로 4m의 스크린에 경기가 중계되는 동안 시민들은 "대~한민국""오~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새벽에 있을 프랑스전 응원을 준비했다. 경찰은 전남대 후문 일대에 230명의 경력을 배치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했다. 전남대와 북구청, 인근 건물주들도 화장실을 개방했다.

자정을 넘어 19일 12시30분이 되자 시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2002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군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가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한 치 물러섬이 없는 공방전을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새벽 4시. 문화단체 '모난돌'(대표 한길우) '붉은 악마 광주지회'(지회장 이준호) 등이 주도한 '올빼미' 응원단은 라이프치히 '젠트랄 스타디온'으로 입장하는 태극전사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았다. 대형 스크린도 부족해서 거리 이곳저곳에는 시민들이 들고 나온 25~40인치 텔레비전 30여대가 태극전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했다.

"쿵~쿵" 북소리를 따라 'Reds go together'를 열창하는 함성이 새벽 하늘에 울려퍼졌다. 파도타기에서 꼭짓점 댄스까지, 밤을 잊은 응원 열기는 라이프치히 하늘에 그대로 투사되는 듯했다. 무등산에서 떠오른 태양도 붉은 응원의 대열에 동참했다.

오전 7시. 응원을 마친 '붉은 악마'들은 곳곳에 모인 쓰레기를 봉투에 담으며 '무박(無泊) 2일, 10시간의 응원장정'을 마감했다.

밤을 꼬박 샌 학생들을 위해 문흥중과 문산중 등 광주시내 상당수 학교들은 1교시 수업을 한 시간 늦게 시작했다. 일부 직장도 밤샘 응원에 녹초가 된 사원들이 쉴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배려했다.

한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19일 새벽 2시부터 응원전이 펼쳐졌다. 광양 실내체육관에서는 새벽 0시부터, 순천 팔마 체육관은 새벽 3시부터, 여수 진남체육관은 새벽 4시부터 시·도민들이 모여 태극전사들을 응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밤을 잊은 응원 열기 한국-프랑스 전을 앞두고 벌어진 전남대 후문 앞 거리응원전. 18일 밤 9시부터 '무박(無泊) 2일' 동안 무려 10시간 응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거리에 TV 30여대가 동원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남서 밀입국 시도 중국인 등 14명 검거

소형 보트로 상륙

해남지역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등 14명이 군·경 합동수색조에 의해 붙잡혔다.

18일 완도해경과 육군 31사단, 해남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조선족 전모(여·25)씨와 중국인 13명 등 14명의 밀입국단이 중국 화물선을 타고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해안가에 도착, 상륙했다가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해안에 상륙한 뒤 등산복 차림으로 어란리 마을 뒤 야산 등에 숨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경찰 등에 의해 붙잡혔다. 전씨 등은 지난 13일 중국 푸젠성(福建省)을 출발, 이날 새벽 해남군 송지면 해안가에 도착한 뒤 길이 4m가량의 FRP 소형 보트를 타고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1인당 170만~230만원의 알선료를 내고 배를 탔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내 알선책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알선책과 밀입국에 사용된 화물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등학생 세차기에 끼어 숨져

지난 17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주유소 세차장의 자동세차기와 벽면 사이(폭 17㎝)에 전모(8·초등 2년)군이 끼인 채 신음 중인 것을 주유소 종업원 김모(47)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씨는 "주유소 편의점 종업원의 아들인 전군이 주유소에 놀러왔다가 없어졌는 데 찾아보니 세차기롤과 벽면 사이에 끼여 있었다"며 "세차기가 움직이며 전군의 몸이 빨려 들어간 것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원참 〈6856〉 김종두

황우석 지지자들 광주서 차량 시위

쌍나팔

○…'황우석 지지자'들이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 등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광주에서 벌여 눈길.

○… '황국연'(황우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국민연합) 광주지부 5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에서 '황교수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열고 승용차 20대와 봉고 5대를 이용해 시청~운천 사거리~백운광장~전남대 정문~금남로~상무지구를 순회.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중인 KBS 추적 60분의 황우석 박사 방송분에 미국의 섀튼 교수가 황박사의 기술을 훔쳐 이미 미국에 특허를 신청했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가 맞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방영 불가 판정을 받은 KBS '추적 60분'을 공개하라"고 촉구.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